

이재명, 영남서도 1위... 굳어지는 ‘대세론’

NEWS

2025년 4월 21일 월요일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지역순회 경선

충청 88% 이어 90.81%... 김경수·김동연 10% 밀돌아
26일 광주서 호남경선...27일 서울서 최종 확정될 듯

더불어민주당이 21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해 20일 울산에서 개최한 영남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승리를 차지했다.

이 후보는 지난 19일 충청에 이어 당의 현지인 영남에서 파죽의 2연승을 올려 순회경선 반환점을 지나면서 대세를 형성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울산전시컨벤션센터(UFCC)에서 두 번째 지역순회 일정인 영남권 경선을 개최한 결과 이 후보가 90.81%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김경수 후보 5.93%, 김동연 후보 3.26%였다.

영남권에서 지난 17일부터 온라인으로 실시된 관리당원 투표 결과와, 현장에서 시행된 전국대의원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것이다.

앞서 지난 19일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충청권 경선에서도 이 후보가 88.15%로 선두를 차지했다. 이어 김동연 후보 7.54% 김경수 후보 4.31%, 순이었다.

이 후보가 압도적 선두를 형성하면서 추격자 입장인 김동연, 김경수 후보는 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과 유권자가 가장

많은 수도권 경선에서 이 후보와 차별성 있는 정책 등을 앞세워 역전을 노려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후보들은 이날 울산 합동연설에서 영남권 발전을 위한 공약과 경격을 발표하며 표심을 호소했다.

이 후보는 부산으로 해양수산부를 이전하고 대구·경북에 이차전지 산업벨트와 미래형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경남지사를 지낸 김경수 후보는 5대 권역별 메가시티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합동연설회에서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린 절체절명의 선택”이라며 “무너진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회복하는 데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트럼프 2기가 불러온 악육강식의 세계질서, AI (인공지능) 중심의 초과학기술 신문명 시대 앞에서, 우리 안의 이념과 진영 대립은 사소한 문제”라며 “국익과 민생 중심의 실용주의만이 유일한 나



이재명(왼쪽부터), 김경수,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20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후보는 “영남 지역에 촘촘한 광역교통망을 만들고, 에이아이(AI·인공지능)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제조업을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또 “수도권 하나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다섯 개의 각기 다른 수도권을 만들어야 한다”며 “5대 권역별 메가시

티’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권력을 내려놓고 기득권 개혁에 앞장서겠다”며 “개헌으로 제7공화국의 문을 열겠다.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영남권에서의 청년 이탈 현상을 지적하며 “모든 금융공기업의 부산 이전을 완수하겠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까지 부산

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권역별 순회경선은 오는 26일은 호남권에서, 오는 27일은 수도권에서 잇따라 열린다.

호남권 경선은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오후 3시께 개최된다.

27일 수도권 경선은 제주·강원권과 함께 치러진다.

민주당은 전국 권역별 관리당원 투표 결

과와 오는 21~27일 실시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절반씩 반영해 과반을 넘는 후보자가 나올 경우, 결선 없이 대선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 후보가 충청과 영남에서 대세를 형성하면서 이 기세를 이어갈 경우 수도권 경선이 열리는 27일 서울에서 최종 대선후보로 확정될 전망이다.

이성호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고흥·해남군, 자전거 여행 활성화 사업 선정

우주항공 테마콘텐츠 등... 관광·경제 활성화 기대

전남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초로 추진한 ‘지역 자전거 여행 활성화 사업’ 공모에 고흥군과 해남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 자전거 여행 활성화 사업은 최근 증가하는 아웃도어 및 레저활동의 수요를 반영해, 자전거길과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함으로써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전거 여행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관광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공모사업이다.

전남도는 공모 초기부터 고흥·해남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계획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민간 전문가 현장평가 시에도 동행해 고흥과 해남의 자전거길과 관광자원의 매력, 전남의 지속가능한

관광 비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최종 선정에 기여했다.

고흥군은 ‘블루마린&스타로드 자전거 투어’ 사업을 통해 두 개의 테마형 코스를 구성했다. 해양 경관이 아름다운 소록도와 거금대교를 따라가는 ‘블루마린 코스’와 우주발사전망대와 팔영대교 등을 잇는 ‘스타로드 코스’다.

자연 절경과 우주항공 테마를 접목한 전국 유일의 자전거 여행 콘텐츠로 새로운 여행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관광객을 위한 KTX 연계 상품도 운영할 계획이다.

해남군은 ‘여행으로 일상회복, 자전거 나들이 해남 미션투어’를 통해 총 11개의 자전거길 중 3개 이상을 완주하

고 SNS 여행 후기를 작성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체험형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표 관광지, 음식, 숙박 등을 포함한 2박3일 코스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두 지역 모두 5월 이후 아름다운 남도의 경관을 배경으로 본격 추진할 예정이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우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이번 성과는 전남의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관리해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자전거 인프라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지속가능한 콘텐츠 개발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번 공모 선정을 계기로 자전거 인프라와 지역 특화 자원을 연계한 테마형 콘텐츠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
시, 식품용수 사용 ‘적합’ 판명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집단급식소 등 식품용수로 사용되는 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시설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식품제조가공업소 7곳, 집단급식소(사회복지시설 포함) 6곳, 일반음식점 5곳 등 총 20개 지하수 시설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해 20곳 모두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사용 중인 지하수를 채수해 검사했다.

노로바이러스는 겨울과 봄철에 주로 발생하는 급성 위장염의 주요 원인 병원체로, 오염된 지하수로 세척한 채소나 가열하지 않은 해산물 섭취, 감염자와의 접촉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약자 등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송기 기자 sky@

“전남으로 봄 여행”... 남도한바퀴 인기몰이
섬·바다·봄꽃 등 다양한 테마 21개 코스 내달 말까지 운행

전남지역 매력있는 관광명소 곳곳을 합리적 가격에 버스로 여행하는 ‘남도한바퀴’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남도한바퀴는 봄을 맞아 남도의 섬과 바다, 아름다운 봄꽃 정취를 만끽할 다양한 테마의 21개 코스를 오는 5월 말까지 운행한다.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여행상품을 1만2900~2만7900원 사이의 합리적 가격으로 운행하고 있다.

특히 남도 바다와 봄꽃 강진·완도 치유 여행, 흥매화 향기 머무는 신안·무안 여행, 벚꽃 즐날리는 섬진강 구례여행, 나만 알고 싶은 비밀정원 고흥 속섬여행 코스가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도한바퀴는 다른 지역에서 오는 관광객도 쉽게 이용하도록 광주 유스퀘어 버스터미널과 광주송정역에서 출발한다. 자



세한 상품 안내와 예매는 남도한바퀴 누리집(citytour.jeonnam.go.kr)이나 전용 콜센터(062-360-8502)에 하면 된다.

심우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남도한바퀴는 전남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 관광명소를 한데 연결해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상품”이라며 “남도한바퀴로 전남에서 소중한 사람과 봄 여행을 계획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N-NEXUS

N넥스 시리즈는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엔에이치이 IT 기술이 탑재된 자사의 브랜드입니다.

연구 & 개발 통합영상처리, 지능형 영상감시 솔루션, 해킹방지 솔루션
제조 & 제작 주·정화 단속 및 CCTV 시스템
ESS 시스템 신재생 에너지 및 LED 조명 시스템, 구조물 및 현상시설, 어린이 안전 유선 보조 장치
설계 & 자문 유·무선망 관제, 서버/네트워크, 영상관제, 보안·지능형교통·열차무선 시스템
유지보수 & 관리 ICT 장비, ICT 운영 및 유지보수
시공 & 설치 정보통신공사, 소프트웨어 설치, 공학 ICT 분야 설계, ITS 설계, 열차무선 시스템, 해킹복합감시체계